

광주과학관서 물놀이 하고 해양탐험도 하고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오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하계 물체 협장을 운영한다. 물체협장은 무더운 여름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여름 개장하는 국립광주과학관의 하계 물체협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0.7m 높이의 청소년풀과 0.5m 높이의 유아풀을 운영한다. 또 샤워실, 탈의실, 테이블,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물체협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3000원이다. 과학관은 이밖에 바다 속의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미지의 해양탐험-Under the Sea' 등도 운영중이다. 문의 062-960-6172.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민 2279명 소망 담아...한국 100kg급 위성 10월 초 발사

우주 폭풍·별 생성 연구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기술검증과 우주과학 임무를 수행할 '차세대소형위성 1호'를 오는 9월 30일~10월 6일에 발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위성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100kg급 소형위성이다. 2012년 6월 개발이 시작돼, 작년 7월 위성체 조립과 성능시험을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 발사되면 우주 폭풍 및 별 생성 연구 자료 등을 모으고 디지털 송수신기, 메모리 등 각종 우주 부품의 성능을 시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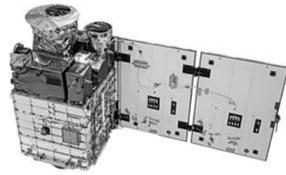
위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Falcon) 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최종 발사일은 9월 중 확정된다.

이 위성은 애초 작년 하반기 발사될 계획이었지만, 발사체 업체의 일정 조정에

따라 1년 정도 발사가 연기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위성에는 국민 2279명의 메시지를 담은 메모리가 들어있다. 이 메시지는 지난 2016년 10월4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카이스트 홈페이지에서 받았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우주과학 연구뿐 아니라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한 우주산업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역



'차세대소형위성 1호'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우주를 향한 도전적·창의적 연구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우정청, 환전·해외송금 수수료 할인

9월까지 우체국 고객 대상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휴가철을 맞아 9월 30일까지 우체국 환전·해외송금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및 요금할인과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9월 30일까지 외국인 고객은 8000원이었던 해외송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비스 이용이 많고 타국에서의 생활이 낯선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고객의 금융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우체국에서 환전과 해외송금을 이용하면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 스마트 접수에서 이용할 수 있는 5% 요금할인 쿠폰(최대 5000원)과 KT의 데이터로밍 기기팩 3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EMS 스마트 접수 고객과 KT로밍 이벤트 홈페이지 방문고객에게 우체국 해외송금 50% 할인쿠폰(SWIFT, Eurogiro)을 제공한다.

경품 증정 이벤트도 풍성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우체국에서 5000USD 이상 환전하면 휴대용 선풍기와 면세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우체국 환전·해외송금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 4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우체국 해외송금과 EMS스마트 접수 이용고객에게는 이용횟수에 따라 경품을 추가 제공한다. 서비스별로 1회 이용고객에게는 5000원권 편의점 기프트콘(총 400명), 2회 이상 고객에게는 100만원 여행상품권(1명)과 태블릿 PC(5명)를 제공한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비싼 요금제에 공들이는 이동사들

6만~8만원대 요금제에 혜택 집중

SK텔레콤이 뒤늦게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3사가 중저가보다는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3사는 신규 요금제를 선보이며 하나같이 데이터 혜택을 늘렸다고 강조했지만, 수요가 많은 6만원 안팎의 요금제(제공량 6~7GB)는 대상을 제외했다.

그보다는 6만9000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해 기존 4~6만원 중반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요금제 상향을 유도했다는 인상이 짙다.

SK텔레콤이 이날 선보인 'T플랜' 스펙은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1.2GB, 미디엄은 월 5만원에 4GB, 라지는 월 6만9000원에 100GB, 패밀리는 월 7만9000원에 150GB를 제공한다. 인피니티 요금제 가입자는 월 10만원에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2월 선보인 무제한 요금제는 월 8만8000원에 속도 제한 없이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여기에 가족, 친구 등 LG유플러스 가입자와 월 최대 40GB 데이터 나눠쓰기가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SK텔레콤 인피니티 요금제는 1만2000원 비싸고, 데이터 공유는 가족 가입자끼리만 가능하다. SK텔레콤은 6개월마다 기존 단말 반납 조건으로 최신 스마트폰 교체 지원, 무료 영화 티켓 등 고가 요금제에 걸맞은 혜택을 추가했다고 강조한다.

양사 요금제 간 가격대에 따른 데이터

격차도 비슷하다.

SK텔레콤 T플랜은 미디엄(5만원)과 라지(6만9000원)의 가격 차이는 1만9000원이나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25배에 달한다. KT 데이터는 역시 특과 비디오의 가격 차는 2만원에 불과하지만, 데이터량은 30배 이상 차이 난다.

소비자라면 자연히 좀 더 싸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압도적으로 많은 요금제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데이터은 출시 후 KT 신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비디오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T플랜의 경우 라지보다는 더 고가인 패밀리로 가입자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 타사에는 없는 가격대와 조건에 가족 간 데이터 공유와 각종 VIP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T플랜의 핵심은 사실상 패밀리 요금제"라며 "라지 이하 요금제는 경쟁사와 큰 차이가 없지만 패밀리는 무제한에 가까운 데이터 제공량에 각종 혜택을 추가해 기존 6만원대 이상 요금 가입자가 월 1~2만원을 더 내고 이동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일 내야 하는 통신비가 늘어나는 셈이다. SK텔레콤은 가족 간 데이터 공유를 이용하면 오히려 가구당 통신비는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유 가능한 요금제로 바꾸고, 매일 데이터를 공유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가세로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은 새로운 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목성의 달 79개...美 연구진 12개 추가 발견

미국 연구진이 목성 주위에서 지름 1~3km의 위성 12개를 새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목성의 달은 모두 79개로 늘어났다.

미국 카네기연구소는 17일(미국 현지시간) 연구소 스콧 셰퍼드 박사가 지난해 봄부터 최근까지 목성 주위에서 정상궤도를 가진 위성 11개와, 다른 위성들과 완전히 판이한 궤도를 가진 위성 1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왕성 밖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 태양계 외곽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이들 위성을 발견했다.

셰퍼드 박사는 "목성은 우리가 탐색하는 태양계 최외곽 근처에 있어 목성 주위에서 이들 위성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새 위성 중 9개는 이오(Io), 유로파(Europa), 칼리스토(Callisto), 가니메데(Ganymede) 등 일명 '갈릴레오의 달들' 바깥쪽에서 목성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도는 역행위성들이다. 공전주기가 2년 정도인 이들 역행위성은 과거 최소 3개의 소행성, 혜성 또는 달들이 충돌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 위성 2개는 이들 역행위성보다 안쪽에서 목성의 회전 방향을 따라 공전하는 순행위성들로 공전주기는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5월에 발견된 위성으로, 어느 달들과 완전히 다른 궤도를 가진 일명 '괴짜' 위성이다.

지름이 1km도 안 돼 목성의 달 중 가장 작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위성은 로마신화 주피터의 중손녀인 '발레투도(Valetudo)'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위성은 순행위성이지만 궤도 거리가 위성들보다 멀고 기울기 역시 훨씬 크며 바깥쪽 역행위성들의 궤도를 가로질러 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발레투도가 향후 역행위성들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촬영된 목성 모습. <NASA제공-연합뉴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